

# 여야 '총선 전초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대진표 확정

### 국힘, 보선 원인 제공 김태우 재공천·민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투입 "김 전 구청장은 공익제보자" vs "윤석열 정권 폭주 심판하자" 총력전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에서 맞붙을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17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검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은 사실상 공익제보자"라는 논리로 공천을 결정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노현송 구청장이 3선 연임한 이후 12년 만에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작전 처리진 대선 때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현재 강서지역 선거구 3곳 모두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공천을 통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투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이자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리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공천했다.

여야 지도부는 곧바로 선거 총력전에 돌입할 전

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 선거를 박스권에 갇힌 당 정 지지율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이를 징검다리 삼아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석이다.

부동산 재개발 고도 제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선거전을 펼치며 '민생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내보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태우 강서구청장-오세훈 서울시장-윤석열 대통령'의 삼각편대를 완성하자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르면 오는 21일 강서구에서 현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본격 선거전을 시작한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력적인 만큼 지도부는 물론 수도권 중진 현역 의원들도 대거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김 후보자가 보선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도부는 지난 15일 전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직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이미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당시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다.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강서구 지역 현역 의원인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한정애(강서병) 의원도 총출동, '뽕뿌리 조직력'을 완전 가동시킨 후보자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40억원 넘게 들여서 구청장 선거를 다시 하게 만든 사람들을 주민들이 구청장으로 똑같이 또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힘 "文 정부 통계 조작...조작 정권·국기 문란" 맹비난

### 문 전 대통령 소명도 요구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연일 부각하며, 전일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 표현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의혹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 일벌백계 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소명도 요구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주도성장"이라는 영타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대선 선거공

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인가"라며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광범위한 '조작 정권'이지 '사기 집단'이란 비판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조작으로 흥한 정권, 조작으로 망한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에 대해 "이제는 전 정부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난데없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자화자찬은 그만두고, 국가의 근bones을 후튼은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우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의뢰한 관련자들에게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김기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다시한번 요청"

### 홍준표 "단식 초기 조롱 발언 사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재명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합시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의 도 조율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기에 여야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 이전에 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

심탄화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장과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는 잇따라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며 "신외무물(身外無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 초기 '절부지' 여러인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말을 사과드린다"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한 건 잘못"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31%...1주 새 2%p 하락

### 갤럽 조사...국힘 33%·민주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1%로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p) 내렸다. 부정평가는 60%로 2%p 올랐다. 부정평가는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4개월여만에 60%대가 됐다.

긍정평가 이유에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투신'(7%),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인보'(이상 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15%), '외교'(11%), '경제/민생/물가'(9%), '독단적/일방적'(7%), '소통 미흡',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통합·협치 부족',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p, 민주당 지지도는 2%p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1%p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 미디어아트 시민공모전

2023.09.18.(월) ~ 09.27.(수) 16:00까지

3분 이내 영상 콘텐츠 해상도 5,390x810 | 형식 MP4 | 코덱 H26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 1부

대상 1명(팀): 300만 원  
최우수상 1명(팀): 200만 원  
우수상 2명(팀): 50만 원

2023.10.10.(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www.gwangju.go.kr)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 (www.gmagp.gwangju.go.kr)

2023.10.12.(목)  
\*관련 일정 개별 연락

2023.10.12.(목) ~ 10.15.(일)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통(TONG)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33회 배동신어등미술제

2023.10.4(수)~10.5(목)

공모분야	장르	제출규격	비고
회화	평면	30호~50호	
서예	한문, 한글(캘리그래피)	70cmx135cm [전지] 70cmx200cm [국전지]	당선 작품 출자는 참가자 부담으로 일괄 제작 예정
문인화	문인화	70cmx135cm[전지]	

시상식 및 전시회  
- 일 시: 2023. 11. 16.(목) 14:00  
- 장 소: 소은아트갤러리 큐비미술관

추천·초대작가 지정서 발급  
- 추천작가: 수상률수 합계가 13점 이상 획득한 출품자  
- 초대작가: 추천작가로서 연속 5회 또는 10회 이상 출품자  
\* 수상률수: 대상7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4명, 특선상 3명, 입선13명

구분	회화	서예·문인화
배동신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광주광역시장상 2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이음대상	공산구청장상 (3명) / 시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공산구청의회위원장상 (4명) / 시상금 30만원	
우수상	공산문화재단이사장상 (10명) / 시상금 10만원	
특별상	공산문화재단이사장상 (여간명)	

유의사항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시 이메일로 파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 타 대회 수상작을 제출하거나, 실제 작품이 제출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  
- 공모작 위한 및 타인의 작품을 모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은 자동취소되며, 상장 및 시상금 반환  
- 전시회 및 시상식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문의  
- 공산문화원 Tel. 062)941-3377  
(62421)광주광역시 공산구 상무대로 265 http://gijw.gwangju.ac.kr

주최 | 광산구 주관 | 광산문화원 후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